

KRIVET Issue Brief

2023

255호

발행인 류장수 | 발행일 2023년 4월 13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대학 박사의 개인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최근 5년간 배출된 지방대학 박사 중 여성 박사와 외국인 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학업전념 박사만을 놓고 볼 때, 진로확정비중 등 고용 측면에서의 초기 이행성과는 수도권 대학 박사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임금 측면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연 근로소득에서는 수도권 대학 박사의 소득에 비해 낮았음. 권역별로는 대경권과 충청권 학업전념 박사의 상용직 비중, 정규직 비중 및 연 근로소득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 역시 타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지방대학 박사의 정주에 있어 개인적 요인, 대학원의 역량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박사급 고급인력 유출을 줄이는 데 중요함을 시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주 1
이 글은 장광남 외(2022),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지방 대학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함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방대학 박사들의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동향 파악 필요

- 최근 박사급 고급인력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 대학 졸업자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국내 대학 졸업자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사(A)	335,367	323,735	323,883	324,004	325,432
박사(B)	14,316	14,674	15,308	16,139	16,420
비중(B/A*100)	4.27	4.53	4.73	4.98	5.05

(단위: 명, %)

주 1
학위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학위취득자를 포함함.

- 지방대학 박사는 지역혁신의 주체이자 성장 동력으로서, 이들의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의 기초가 되는 분석이 필요함.
 -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인재의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이행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 관련 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부각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최근 지방대학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인적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학업전념 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2018~2022)」

- 분석 대상: 최근 5개년(2018년도~2022년도) 간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51,626명(조사응답자 기준)
 - 지방대학 박사 24,520명, 수도권 대학 박사 27,106명



KRIVET 모바일 앱

- 노동시장 이행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학업전념 박사와 직장병행 박사로 분류하여 학업전념 박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 학업전념 박사: 박사과정 중 조교, 아르바이트와 프로젝트, 시간강사 등을 했지만 학업에 전념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직장병행 박사: 박사과정 중 재직 또는 고용주, 단독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업전념 지방대학 박사 12,225명, 수도권 박사 13,341명

02 지방대학 박사의 개인 특성 및 초기 노동시장 이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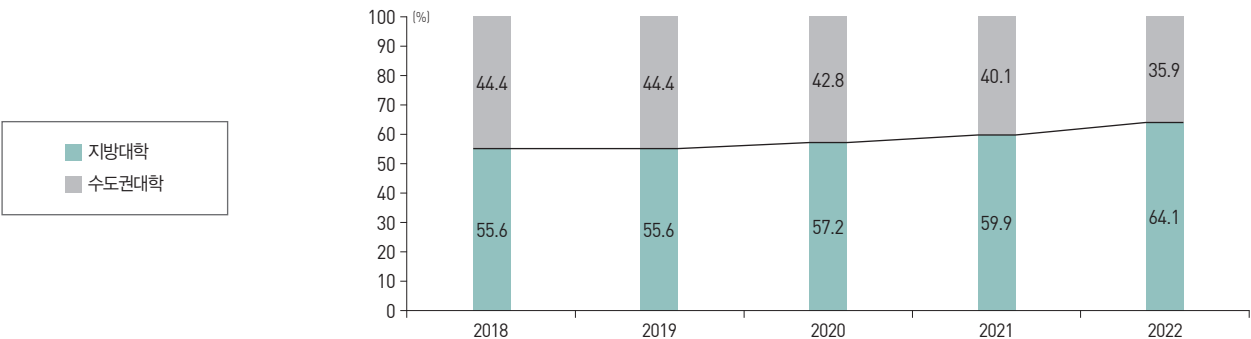
지방대학 박사 중 여성 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박사의 수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추세가 강함

- (성별) 지방대학 박사 중 여성의 비중은 2018년 34.0%에서 2022년 38.0%로 증가하였음.
- (국적) 지방대학 박사 중 외국인 박사는 2018년 487명(11.6%)에서 2022년 1,478명(26.0%)으로 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였음.
- 전체 외국인 박사 중 지방대학 박사의 비중 역시 2018년 55.6%에서 2022년 64.1%로 증가하였음.

〈표 2〉 신규 지방대학 박사 중 여성과 외국인 박사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성별	여성	1,433	1,510	1,692	1,853	2,154
	비중	34.0	33.9	34.2	35.4	38.0
국적	외국인	487	586	709	958	1,478
	비중	11.6	13.2	14.3	18.3	26.0

(단위: 명, %)



〔그림 1〕 외국인 박사의 비중 변화(지방대학 vs 수도권 대학)

각주

- 1) 진로확정비중 : 전체 응답자 중 박사학위 취득 시점에 재직중에 있거나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으로 산출
- 2) 상용직 비중 : 취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으로 산출
- 3) 정규직 비중 : 취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정규직 근로자 비중으로 산출

주

Pr(|T|>|t|) < 0.01. t-test 양측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학계·연구계로의 진로확정비중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학업전념 지방대학 박사의 고용 측면에서의 초기 이행성과는 수도권 대학 박사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진로확정 비중¹⁾은 지방대학 박사(52.2%)와 수도권 대학 박사(51.6%)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학계·연구계로의 진로확정비중은 지방대학 박사가 37.6%로, 수도권 대학 박사 34.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상용직 비중²⁾은 지방대학 박사(64.5%)와 수도권 대학 박사(63.7%)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정규직 비중³⁾은 지방대학 박사(51.6%)와 수도권 대학 박사(49.7%)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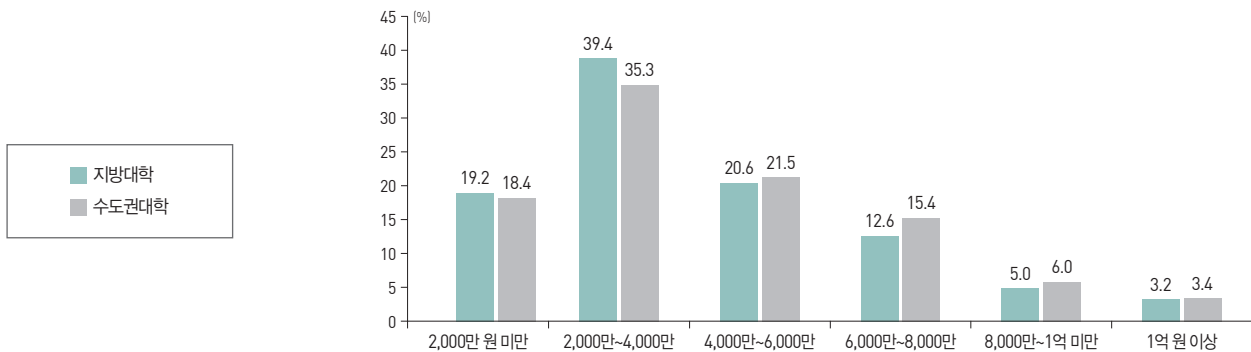
〈표 3〉 고용 측면에서의 초기 이행성과(학업전념 박사)

구분		지방대학 박사(A)	수도권 대학 박사(B)	차이(A-B)
진로확정 비중		52.2	51.6	0.6
	(학계, 연구계)	37.6	34.2	3.4*
상용직 비중		64.5	63.7	0.8
정규직 비중		51.6	49.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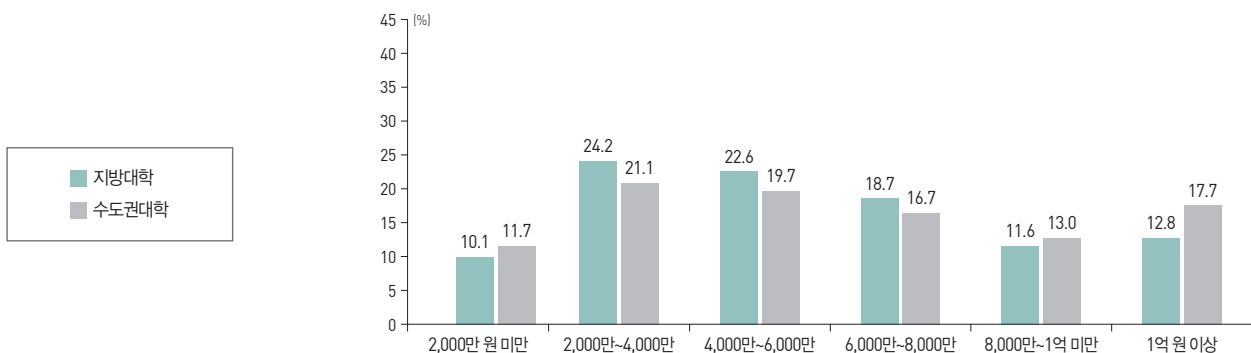
(단위: %, %p)

학업전년 지방대학 박사의 연 근로소득은 수도권 대학 박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음

- 앞서 고용 측면의 초기 이행성과 분석 결과와 대조적으로, 임금 측면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연 근로소득에서는 지방대학 박사의 연 근로소득이 수도권 대학 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방대학 박사의 비중이, 4,0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수도권대학 박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결과는 직장병행 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자 간 연 근로소득 분포의 차이는 직장병행 여부와 무관하였음.



[그림 2] 학업전년 박사의 연 근로소득 분포 비교(지방대학 vs 수도권 대학)



[그림 3] 직장병행 박사의 연 근로소득 분포 비교(지방대학 vs 수도권 대학)

타 권역에 비해 대경권과 충청권 학업전년 박사의 상용직 비중, 정규직 비중 및 연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율도 높았음

- (상용직 비중) 대경권 및 충청권 학업전년 박사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65.9%, 68.0%로, 지방대학 전체 64.5%에 비해 높았음.
- (정규직 비중) 대경권 및 충청권 학업전년 박사의 정규직 비중은 각각 53.5%, 54.3%로, 지방대학 전체 51.6%에 비해 높았음.

〈표 4〉 권역별 학업전년 박사의 상용직 및 정규직 비중

구분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지방대학 전체
상용직 비중	61.9	65.9	62.0	68.0	64.5
정규직 비중	48.3	53.5	50.9	54.3	51.6

(단위: %)

주 |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배출된 박사 수와 권역 내 소재 대학 수(제주권의 경우)가 적어 비교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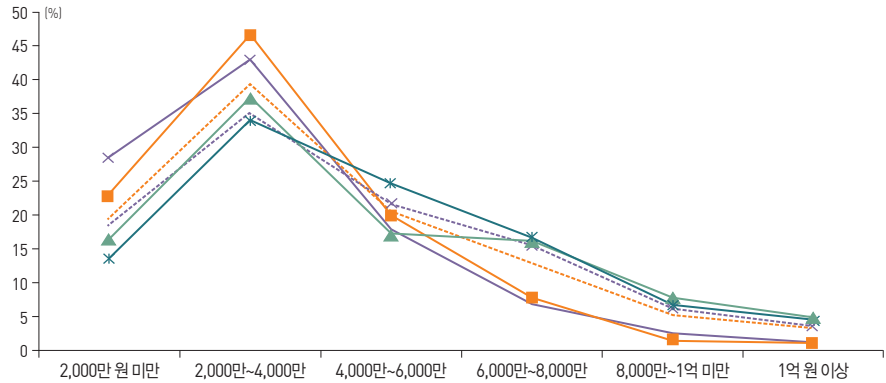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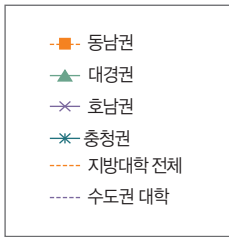
- (연 근로소득) 근로소득 6,000만 원 이상의 연 근로소득을 얻는 학업전년 박사의 비중이 대경권 28.8%, 충청권 27.8%로 지방대학 전체 20.8%에 비해 높았음.

〈표 5〉 권역별 학업전년 박사의 연 근로소득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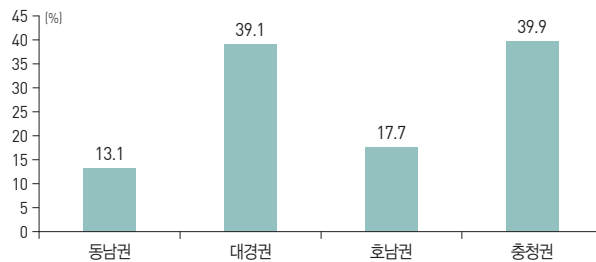
권역	2,000만 원 미만	2,000만~4,000만	4,000만~6,000만	6,000만~8,000만	8,000만~1억 미만	1억 원 이상	6,000만 원 이상
동남권	23.0	46.6	19.8	7.7	1.7	1.2	10.6
대경권	16.3	37.6	17.3	16.1	7.9	4.8	28.8
호남권	28.6	42.9	18.0	6.8	2.5	1.1	10.4
충청권	13.5	34.1	24.6	16.7	6.6	4.5	27.8
지방대학 전체	19.2	39.4	20.6	12.6	5.0	3.2	20.8
수도권 대학	18.4	35.3	21.5	15.4	6.0	3.4	24.8

주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배출된 박사 수와 권역 내 소재 대학 수(제주권의 경우)가 적어 비교에서 제외함.



〔그림 4〕 권역별 학업전년 박사의 연 근로소득 분포

- (수도권 직장에서의 이동 비율) 대경권 및 충청권 학업전년 박사의 수도권 직장에서의 이동 비율은 각각 39.1%, 39.9%로, 동남권 및 호남권 학업전년 박사에 비해 높았음.



〔그림 5〕 권역별 학업전년 박사의 수도권 직장에서의 이동 비율

03 시사점

- 지방대학 박사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수도권 대학 박사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임금 측면인 연 근로소득에서 차이를 보였음.
-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았던 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상용직 비중, 정규직 비중 및 연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 수도권 직장에서의 이동이 초기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지방대학 박사의 정주에 있어 개인적 요인, 대학원의 역량 요인과 함께 일자리라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박사급 고급인력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중요함을 시사함.
- 다만 본 분석은 박사학위 취득 시점에 초기 노동시장 이행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박사후 연구원(Postdoc)을 거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로가 배제되어 있어, 중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살펴보는 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장 광 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현 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